세계인의 발걸음 광주로…광주로…'열린 국제도시' 도약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추궈훙 중국대사 윤시장 예방
美 리퍼트 대사 등 26개 주한 외국 대사들 개회식 참석
갈리앙 FISU 회장 등 세계 대학 스포츠 지도자 총집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국제 도시' 광주시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U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대사들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예방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인의 시선이 광주로 쏠리고 있어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U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가 윤장현 시장을 예방한다. 캐나다는 건국기념일인 이날 광주에서 선수단 등과 함께 기념행사도 갖는다.

다음날인 2일에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윤 시장과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날 윤 시장은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와 함께 민선 6기 들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프렌들리' 등 친중국 시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개회식날인 3일 광주 U대회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에서 윤 시장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뉴질랜드와 필리핀, 일본, 네델란드 주한 대사들도 광주시를 방문해 광주시 국제관계대사와 환담을 갖는다.

특히 이번 광주U대회 개회식에는 전 세계 26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광주를 찾는 외교 국가 대표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외국 대사들의 연이은 방문에 따라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 세계 대학스포츠 지도자들도 광주로 총집결했다.

세계 대학 스포츠계를 이끌고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위원들은 이날부터 1일까지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중이다.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U대회 관련 정책들을 논의·결정하고 차기 개최도시들의 준비 진행사항을 승인·점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끌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 김종량 FISU 집행위원 등 주요 집행위원과 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차기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는 그동안 광주가 보여줬던 민주의 도시 등 다소 무거운 이미지를 뛰어넘어 개방화, 다양화, 국제화를 이끄는 젊은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광주 시민 모두가 민간 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세계 대학 스포츠 지도자들 총출동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지난 30일 오후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총리 첫 광주 방문
선수촌·주경기장 현장점검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광주 U대회 현장점검을 위해 대회 선수촌과 주경기장 등을 찾는다. 총리 취임 이후 첫 광주 방문이다.

황 총리는 이날 낮 선수촌 식당에서 오찬을 곁들인 대회준비 현황 보고를 받고, 선수촌 안내소와 메르스 지원단을 찾아 메르스 유입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어 광주 U대회 주경기장인 월드컵 경기장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미디어 센터 등 각종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중증장애인도 'U대회 성공' 한마음으로 뛉니다"

오늘 성화봉송 주자 김형석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광주 U대회의 성공을 위해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형석(58) 소장 등 중증장애인 6명이 1일 오전 10시 광주U대회를 빛낼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다. 이들은 휠체어를 탄 채 성화를 들고 목포 옛 중앙초교 앞에서 1호 광장까지 200m거리를 달린다.

김 소장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성화 봉송주자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리에 나온 목포시민들도 휠체어 성화봉송 장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 당구·럭비·배드민턴 선수이기도 한 이들은 성화봉송뿐만 아니라 개회식, 경기 관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미 개회식 표는 물론 리듬체조와 야구 경기장 티켓도 구했다. 목포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는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해 응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단체다. 김 소장은 이 곳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용한 사회복지와 생활정보,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성화는 이날 목포를 출발해 영암·나주를 돈 뒤 광주에 입성한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U대회 이모저모

서희건설·휴먼시티 입장권 1억원 단체구매 약정

윤장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은 (주)서희건설과 (주)휴먼시티와 지난 30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U대회 입장권 1억원 단체구매 약정을 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원용 휴먼시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조직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U대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 정용화 광주U대회 조직위 부위원장과 김대홍 롯데백화점 광주점 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약정식에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000만원 상당의 U대회 입장권을 구매했다.

LTE방송 '유니브로 개국…현장 뉴스 유튜브에 서비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전 세계에 알릴 세계 대학생 LTE방송 '유니브로(www.uni-bro.com)'가 7월 1일 개국한다.

광주 U대회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 북문 옆 마켓스트리트에 건립된 유니브로(주간 정철)는 1일 오후 2시 서강석 호남대 총장과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 유니브로 대학생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 행사를 갖고 모바일 방송을 첫 송출한다.

이들은 광주U대회 경기 소식과 대회기간 열리는 세계청년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의 현장 뉴스와 영상을 유튜브(YouTube)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유니브로 콘텐츠는 홈페이지(http://www.uni-bro.com)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UnibroGMC)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유니브로'를 검색하면 만나 볼 수 있다.

개회식 날씨는 '쾌청'… 기온은 20~29도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이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3일 광주는 구름만 조금 낄 예정이다. 그날 광주의 예상 기온은 20~29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개회식이 열리는 날 비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회기간(3~14일) 중인 6, 7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식 동신대 교수 한국선수단 부단장 선임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지낸 김홍식 동신대 교수가 광주U대회 한국선수단 부단장에 선임됐다.

김 부단장은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상임위원과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을 맡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 때 광주U대회 유망주를 발굴하는 '유니스타' 프로젝트를 개발해 선수 육성에 기여했다.

/특별취재단=최권일·박정욱기자 cki@